

南北韓 關係에서 본 從屬理論

- A·G·Frank의 理論과 관련하여 -

高 性 俊

目 次

- | | |
|-------------------------|------------------|
| I. 序 | IV. 從屬理論과 韓國의 現實 |
| II. 從屬理論의 背景과 內容 그리고 批判 | V. 結 論 |
| III. 北韓의 對南戰略과 從屬理論 | |

I. 序

70년대 후반부터 단편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從屬理論은 최근에 와서 젊은 세대의 학생들 사이에 커다란 관심과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최근의 사태를 볼 때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데올로기 批判이란 단제에 까지 파문을 던지고 있다.

국내 몇몇 사회과학자들이 從屬理論을 국내에 소개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내외적 특수성을 의식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理論은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들이 현실을 부정하고 체제에 도전하는데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무기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中南美를 중심으로한 第3世界의 低開發의 診斷과 處方을 목적으로 삼고, 기존의 發展理論에 대한 代案으로 등장한 從屬理論은 그 출발에서 부터 슬한 논의와 화제를 불러 일으켜 왔다. 이 이론은 아직도 記述次元에 머물러 있는 가설적 이론에 불과하며 概念과 學派가 뚜렷히 전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많은 論理的 문제점과 현실적용의 難點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¹⁾ 특히 이 理論은 概念의 단순화와 圖式化로 인하여 상당수준의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

1) 文丞益, "從屬理論이란 무엇인가," 尹謹植編, 現代政治의 政治經濟學的分析, 法文社, 1980. p. 65.

한 사람들은 쉽게 말려들어 가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일부 대학생들은 현실을 분석함에 있어 外來理論인 從屬理論을 批判的으로 受容하는 자세가 아니고, 이 理論의 「一分派」 즉 南美의 네오 맑시스트들이 주장하는 과격한 行動主義的 이론과 이데올로기를 마구잡이로 적용하고 성급한 행동으로 옮기려는 폐단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經濟的 政治的 現實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해방후의 우리나라 現代史의 전체적인 전개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60년대 부터 資本主義 經濟體制가 바탕이 되어 이룩해온 우리의 經濟的 成長을 否定하며,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은 단순히 강대국과 그에 야합한 지배계급의 경제이익의 반영으로만 보고 있다. 또 우리의 역사는 買辦資本 買辦官僚 買辦軍閥의 결탁에 전개된 것이라고 규정짓고 反美·駐韓美軍 철수를 주장하며 이의 해결은 오직 暴力에 의해 現 政府를 타도하고 社會主義的 革命的 길을 가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從屬理論을 發展의 代案을 제시하는 萬病通治의 모델로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에 便乘이나 하듯이 北韓共產集團은 지난 30여년 동안 한치의 변화도 보여주지 않은 南韓革命戰略에 따라 이와같은 일부 지식인 및 대학생들의 性向에 맞추어 「意識化 工作」과 對南우회 침투를 통한 「組織化 工作」을 일층 강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공산집단이 일부 지식인 및 학생들의 理念 變질현상을 南韓혁명수행 여건조성에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사태의 일대 전진으로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고무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내일의 이 나라의 주인공들인 젊은이들이 상극된 이데올로기로 對峙하고 있는 우리의 南北韓관계 現實에서, 마르크스主義와 分析的 視角을 같이하는 A.G. Frank와 같은 急進主義者들이 주장하는 過激한 「從屬理論」이라는 틀을 가지고 현실을 조명하여 우리의 현실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의 位置와 우리의 課題를 바로 인식치 못하고 이데올로기적인 方황이나 또는 이데올로기적 虛偽意識에 사로 잡혀 있다면 그들 개인은 물론이고 민족과 국가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知性的 成熟을 통하여 現實을 歪曲하는 急進的 從屬理論의 拘束과 魔力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 時代의 이데올로기 批判教育이 당면한 時急한 課題라고 볼 수 있다.

2) 李奎浩, "生存과 繁營을 위한 決斷", 1981.2. 이데올로기批判세미나 발표.

3) 廉弘喆, 從屬理論 - 低發展의 政治經濟學, 法文社, 1981. p.219.

II. 從屬理論의 背景과 內容 그리고 批判

1. 形成過程

從屬理論이란 2차대전후 제3세계 특히 中南美諸國의 經濟가 15세기의 重商主義 이래 지금까지 第一世界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從屬構造의 실상과 그 역사적 전개 과정, 그리고 그에서 결과된 第三世界의 정치, 경제적 低開發現象을 기술, 설명, 비판하고 그 들 나름의 發展代案을 제시하는 일련 이론 체제이다.⁴⁾

라틴아메리카 後進國들은 戰後 西方 資本主義가 秩序를 回復하면서 世界 經濟를 主導, 後進國에도 成長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期待했으나 先進國들과의 겹은 벌어지기만 했다.

이같은 背景下에서 後進國들은 西歐學者들의 主張하는 資本主義 經濟 理論은 低開發國家에 는 맞지 않으며 國際經濟에 參與하면 할수록 搾取만 當한다는 理論을 主張하게 된 것이다.

西歐學者들이 주장하는 전통적인 발전 또는 성장이론은 서구의 자본주의 체제가 그들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진화론적 개념으로 설명한 이른바 擴散모델(diffusion model)인데 그것은 모든 나라가 발전 과정에서 일정한 단계를 거치며, 현재의 저개발국가들의 종속현상도 初期資本主義가 겪었던 경험과 유사한 것으로서 國內의 上層階級이 부유해지면 자동적으로 그 富가 下層階級으로 이전되고 富國의 好況을 누리게 되면 그 惠澤이 貧國에도 파급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先進國의 규범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 바로 從屬理論家들이다.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은 독립된 이래 계속된 近代化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低開發現象은 해소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南·北간의 貧富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종래의 어프로치와는 다른 새로운 視角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저발전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視角이 곧 從屬理論이다.⁵⁾ 그래서 從屬理論家들은 제3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病理現象에 대한 근본적인 原因은 곧 제3세계가 제1세계에 從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종속이론은 크게 나누어 네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⁶⁾

제1 단계는 UNECLA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의 책임자였던 Raul Prebisch가 1949년 UN에 제출한 "The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and Its

4) 金浩鎮, "從屬理論批判," 國民倫理學會, 82年 春季세미나 주제발표, p.93.

5) 전웅, "종속이론의 한계와 오류" 연세춘추, 82.4.12. 제 922호.

6) 金浩鎮, op. cit. pp.94~95. 從屬理論의 發展歷史를 간략히 기술한 것으로 다음을 參照할 것. Ronald H. Chilcote and Joel C. Edelstein (eds), Latin America: the Struggle with Dependency and Beyond (New York: John Wiley, 1974) pp.39~46.

4 는 문 집

Principal Problem"이란 보고서에서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경제발전이 지지부진한 것은 中心國(Metropolis)와 周邊國(Satellite) 사이의 不平等 교환관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그 해결책으로 輸入代替産業의 강화를 제안한 시기다.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은 이러한 Prebisch의 견의에 따라 輸入代替産業을 주축으로 한 工業化를 시도했지만 그 결과는 低開發의 심화뿐이었다. 주요원인은 多國籍 기업의 창궐과 外債의 누증때문이었다. 따라서 수입대체산업 정책을 채택한 나라들은 오히려 대외종속을 가중시켰다.

제 2단계는 6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ECLA의 代案을 비판하고 그 원인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Frank 중심의 CESO學派(Centro de Estudios Sociales of the Universidad de Chile)와 Dos Santos 중심의 CREEN學派(Centro de Estudios de la Realidad Nacional of the Universidad Catolica de Chile)에 의해 從屬理論은 이론적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 단계를 발전단계라 할 수 있다.

제 3단계는 2단계에서 形成된 從屬理論이 Osvaldo Sunkel과 Furtado 등에 의해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걸쳐 더욱 구체화된 단계이며,

4단계는 70년대 초이후 지금까지 종속이론학과 내에서도 從屬理論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自家批判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기를 뜻한다.

이와같이 從屬理論은 形成·發展되어 온 것인데 아직도 未完成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從屬理論이 대두하게 된 背景에 있어 看過해서 안될 사실은 이 이론의 등장은 제 3세계의 民族主義運動과 불가분의 함수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從屬理論家들은 第 1世界의 發展論者의 主張을 第 3世界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회의를 품고 自己固有의 文化, 價値를 바탕으로 발전문제를 생각하게 되었고 독자적인 理論의 정립에 전념케 된 것이다. 따라서 종속이론은 그 형성과정과 동기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南美를 중심으로한 제 3세계 학자들이 주체적 입장에서 自主의 국가발전과 민족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립한 이론이기에 그것은 학문적인 屬性과 아울러 이데올로기의인 屬性이 混在하는 이른바 民族主義 實踐理論으로 간주될 수 있다.⁷⁾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從屬理論은 제 3세계의 低開發問題를 조명하는데 있어 自我準據의 問題意識과 視角을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2. Frank의 從屬理論(急進論的 從屬理論)

開發國과 低開發國간의 從屬現象에 대한 대표적 定義는 「從屬이란 어느 國擘의 經濟가 그들이 종속된 다른 국가의 발전과 팽창에 의해 條件지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저개발국가는 개발국가의 발전에 좌우되고 經濟는 물론이고 政治·軍事·技術·文化·情報 등 여러차원

7) 陳德奎, "제 3세계의 政治理念," 東西日報社 安保統一研究會 編, 第 3世界, 동아일보사, 1980, p.49.

에서 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영구히 저개발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⁸⁾

그러면 이와같은 제 3 세계의 從屬構造는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가? 從屬理論家들은 그 시기의 원형은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유럽에서 부터 전개된다고 보고 있다. 즉 15세기 유럽에서 태동한 重商主義 및 資本主義의 팽창기운은 海外植民地를 개척 수탈하기 시작했으며 世界經濟秩序를 유럽이라는 中心圈과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邊防國의 종속관계로 변모시켰으며 이 종속관계는 국제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팽창을 통해 植民地型 從屬관계 → 金融產業型 從屬體制 → 技術·產業型 從屬단체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고⁹⁾ 그 결과 중심권의 발전은 가속화되었으나 변방권의 경제는 「低開發의 開發」 현상을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⁰⁾

라틴 아메리카의 經濟, 政治的 低開發 現象을 西歐의 資本主義 國家와 關聯시켜 全世界的 次元에서 政治, 經濟的 體系를 살펴봐야 한다는 從屬 理論은 主唱者들은 卽 Raul Prebisch, Celso Furtaso, Antonio Pavros de Castro, Andre Gunder Frank, Dos Santos, Osvaldo S-ankel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특히 急進主義的 從屬理論家의 代表的인 Frank의 主張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라틴아메리카의 低開發은 이들 社會가 가지고 있는 基本的인 矛盾 卽 메트로폴리스 (中心·Metropolis)와 세틀라이트(周邊·Satellite)의인 連關性 自體가 低開發을 漸次로 擴大再生産하고 있다는 것이다.¹¹⁾

라틴아메리카의 經濟는 16世紀 부터 植民地로 征服된 以後 世界資本主義의 榨取 構造속에서 編入됨으로써 先進 中心國의 周邊國 卽 衛星國家의 性格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形成시킨 經濟的 剩餘는 中心國으로서의 西歐資本主義 發展은 持續的으로 促進시켰지만 그 반대로 라틴아메리카에 對해서는 低開發을 累積化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國際的인 中心國과 周邊國의 關係는 라틴아메리카의 國內社會에서도 또한 中心圈과 周邊圈이라는 二重 構造를 造成시킴으로써 中心部로서의 大都市와 周邊部로서의 下層 階級과

8) 진웅, op.cit.

9) ① 植民地型 從屬關係는 15세기 유럽제국과 식민지제국과의 관계를 뜻한다.

② 金融產業型 종속체제는 18세기 산업혁명에 성공한 서구열강과 후진 낙후지역과의 관계를 뜻한다.

③ 技術·產業革 종속은 다국적기업을 매체로 하여 강대국과 후진국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10) 「低開發의 開發」(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 현상은 ① 외국자본의 대량침투 ② 선진외국기술의 대량도입 ③ 수입대체산업의 비대 ④ 엘리트 계층의 소비패턴 서구화 ⑤ 불평등交易 ⑥ 소득 격차의 심화 및 실업의 증대현상등을 지칭한다.

Andre Gunder Frank, On Capitalist Underdevelopment, Bombay: Oxford Univ Press, 1955. 參照

11) 廉弘喆, op.cit., pp.88~90.

農村地域의 二重構造를 造成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國內의인 二重 構造의 支配, 從屬關係는 價値 配分의 不平等을 誘發함으로써 격심한 貧富의 차이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

세계로 라틴아메리카의 階級構造中에서 特히 國際的 中心圈에 依해서 造成된 國內의 支配階層인 부르조아지에 對하여 注目하면서 이들이 곧 라틴아메리카의 低開發을 持續시키고 있는 階級 構造의 條件이라고 規定하였다. 이것은 新植民主義的 認識에 바탕을 둔 國內植民地 (Internal colonialism)의 性格이라고 보고 있다.

네째로 라틴아메리카가 低開發에서 벗어나는 길은 武裝鬭爭에 依한 資本主義 體制의 打倒와 社會主義 體制를 成立시키는데 있다. 社會主義 革命에 있어 主要 敵對 勢力은 中心圈 卽 西歐資本主義 國家인 帝國主義 勢力과 이에 同조하는 國內 買辦 엘리트들이다. 그리고 革命의 推進은 戰略上 國內 買辦엘리트를 相對로 展開해야 하고 革命 推進의 中樞 勢力은 知識人 또는 마르크스主義者들이며 動員의 主 對象은 民衆階層(一般 被支配階級)이 돼야 한다고 主張한다.¹²⁾ 이러한 관점에서 Frank는 人間的인 社會의 성취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적 양식과 자본주의적 국가가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³⁾

이와같은 Frank의 主張에서 從屬理論이 가지는 新마르크스主義的 性格을 다음과 같이 指摘할 수 있다.¹⁴⁾

첫째로 Frank가 주장하는 급진론적 從屬理論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理論體系의 틀에서 그의 가설을 입증하려 한다. 그의 世界的 國家的 Metropolis-Satellite의 概念은 帝國主義와 植民主義의 論理에 對한 變用이며 제3 세계의 저발전 상태를 과거와 현재의 서구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지배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로 從屬理論이 다루고 있는 重要한 認識의 바탕은 文化中心的인 性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物量 中心的인 卽 唯物論的 認識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點이다. 從屬理論은 意識이 狀況을 決定하는게 아니고 狀況이 意識을 決定한다는 觀念위에 基礎하고 있다.¹⁵⁾

세계로 Frank의 境遇 라틴아메리카의 解放은 단지 經濟發展에 依한 社會성원의 物量的 증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支配集團의 改革에 依한 政治的 改編에 依해서가 아니라 바로 暴力的 革命에 依해서 既存體制 전복만이 唯一한 方法이라는데서 마르크스 레닌主義的 性格이 있다.

네째로 從屬理論은 그것이 目標로 삼고 있는 社會秩序가 平等社會의 確立을 一次的인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主義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12) 陣德奎, op.cit., p.56.

13) 曠弘喆, op.cit., pp.62~65.

14) 陣德奎, op.cit., p.62.

15) 金瓊東, "사회변동의 성격과 발전의 논리" 月刊朝鮮, 81.12號, p.55.

〈表 1〉 從屬學派內的 두 觀點

관점 주제	부르조아적 관점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從屬에 대 한 鬭爭	從屬의 克服은 國家發展(資本主義的 인)을 유도한다.	生産手段의 私的 所有權을 극복하면 資本 主義 體制의 붕괴와 社會主義的 發展이 유도된다.
階 級	國家發展을 통해 自主的인 위치에 서 게 된다. 寡頭支配者와 부르조아지, 그리고 기본 계급으로서의 民族의 부 르조아지들로 구성되는 中間部間을 強調한다.	점차 갈등 상태로 되어 간다. 봉건계급, 부르조아지, 그리고 기본계급으로서의 프 롤레타리아들로 구성되는 無産階級을 강 조한다.
資本主義 的 發展	古典的 資本主義와 從屬的 資本主義 를 區別하는 유형에 根據를 두고 있 다.	生産樣式, 生産의 社會的 關係, 階級鬭爭 등에 입각한 法則들에 根據를 두고 있다.
國 家	從屬을 제거하기 위한 鬭爭에 있어서 民族에게 기여한다.	資本主義的 發展과 國家的 從屬을 보호· 유지하는 데 있어 支配階級에게 기여한 다.
帝國主義	從屬國家에 대한 支配國家의 차취를 說明해 주는 政治的·軍事的 膨脹과 연관되어 있다.	資本主義的 生産樣式에 있어서의 矛盾의 窮極的인 發展에 影響을 미치는 資本主義 의 獨占段階과 연관되어 있다.
學 者	Furtado, Sunkel Dos Santos	Frank, Amin, Wallerstein

※ 출처 : Ronald H. Chilcote "A Question of Dependency" Latin American
Review, Vol 13, no.2.(1978). p.6. 廉弘喆, op.cit. 재인용, p.63.

이러한 從屬理論은 이제 오늘의 第3世界의 政治的, 經濟的 低開發을 說明하는 데 까지 이
르고 있다. 從屬理論家들의 견해를 빌리면 오늘의 第3世界가 形式上 獨立은 했으나 經濟的
인 次元에서는 몇몇 中心國에 依속되었다는 것이다.

오늘의 第3世界諸國이 國際資本主義 經濟 秩序 속에서 차지하는 經濟的, 技術的 地位가 너
무나 열세하기 때문에 經濟的으로 심지어 政治, 文化面에 있어서도 國際資本主義 列強, 이른
바 第一世界와 中心國에 從屬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급기야 政治的 低開發까지 露呈하게 되
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오늘날 第3世界가 겪는 政治, 經濟的 진통은 從屬이 낳은 必然的
結果라는 것이다.

3. 問題點 批判

지금까지 우리는 從屬理論의 意味, 形成背景, Frank 流의 主要論點 등을 살펴 보았다. 이

제 우리는 관심을 돌려 從屬理論이 갖는 社會科學의 意義가 있다면 무엇이며, 問題點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인가를 살펴보자. 從屬理論이 갖는 학문적인 공헌은 그것이 第3世界의 주체적 입장에서 社會現象을 분석하는 進步的이고도 自我準據의 視角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제3세계의 低開發 現象을 분석하는데 있어 과거의 西歐의 近代化 論者들이 미처 관심을 못가진 歷史的, 國際體制的, 構造論的, 主體的 시각에서 접근, 제3세계의 外在要因과 內在要因이 구조적으로 융합된 이른바 從屬構造의 力學作用을 분석의 軸점으로 부각시킨 것은 학문적 공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¹⁶⁾ 그러나 종속이론은 이와같은 사회과학적 의의가 있음에도 문제점이 너무도 많다.

가. 方法論上 및 理論上의 問題點

첫째로 方法論的인 측면에서 볼 때 從屬理論은 國家를 國際經濟秩序의 從屬變數로 간주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종속이론은 제3세계의 저개발현상을 국제경제체제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경우 분석의 기본단위는 국제체제나 질서가 되며, 제3세계 국가는 자율성이나 주체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현실적으로 日本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제3세계 국가의 발전은 자신의 의지와 지혜 그리고 노력 여하에 따라 국가경제질서상의 位相을 변경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종속이론은 논리적인 비약이요 독단적이다.¹⁷⁾

둘째로 종속이론은 理論으로서 하나의 범례에 불과하며, 비과학적인 규범론이며 從屬에 대한 概念은 세련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¹⁸⁾ 다시말해서 종속이론은 假說檢證과 一般理論을 導出하려는 努力을 등한시하고 다분히 價値含蓄的인 主張만 편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속구조에 대한 조직적 검토와 규명, 사례연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수고려, 비교분석, 역사적 조사분석등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 「中心-周邊」關係論에 대한 批判

첫째로 종속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중심-주변」關係 라는 기본 가정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독단적이라는 점이다. 종속이론가들은 종속을 너무 二分的 變數로 개념화하고 있다. 모든 국가를 中心(착취)-周邊(피착취)으로 규정함은 단순한 黑白論理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從屬文獻에서 中心國家로 분류하고 있는 캐나다 벨기에가 從屬國家로 인정되는 印度나 파키스탄보다 해외투자부문에서 훨씬 더 선진국에 종속적인 것이다. 그리고 제3세계국가들중에는 상당한 나라가 資本主義的 貿易體系에 통합됨으로써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경우

16) i) 金浩鎮, op. cit., p.108.

ii) 康弘喆, op. cit., p.214.

17) 金浩鎮, op. cit., pp.108~109 參照

18) 전웅, op. cit.,

들을 간과할 수 있다. 世界銀行의 발표에 의하면 년 평균 경제성장률 6%를 상회한 제3세계 국가가 20개국 가량 되는데 이들 국가들 중 產油國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건대 이 경우에는 종속이론가의 주장이 빗나간 것이라 볼 수 있다.¹⁹⁾

둘째로 「중심-주변」關係論은 편향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가설화했다는 점이다. 종속이론가들은 현존하는 모든 「중심-주변」관계의 사례 즉 오늘날 「東歐經濟 相互援助會議」(COMECON) 내에서 동구공산국가들이 경제적인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부문에서조차 소련에 종속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종속관계의 설명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나, 이는 때버리고 단지 개발된 자본주의 국가와 저개발된 자본주의 국가간의 관계만의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편향성 때문에 종속이론은 종속이 단지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빚어지는 전유물처럼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²⁰⁾

다. Frank의 開發 戰略上的 問題點

급진론적 종속이론가들은 제3세계 국가들이 종속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회주의 暴力革命이며, 그런 연후에 自給體制(Autarky)를 통해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론자들의 戰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²¹⁾

첫째로 方法的 非道德性을 들 수 있다. 暴力를 통한 개발의 추구는 결코 道德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戰略의 非現實性이다. 暴力으로 기존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희박하며 사회적 혼란과 국력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세째로 政策的 失敗可能性이다. 즉 지금까지 제3세계 국가들이 사회주의 발전모형을 채택한 나라들은 거의 다 경제성장에 失敗를 했다는 사실이다. 탄자니아가 그렇고 앙고라, 버마, 리베리아 등이 그 예가 된다. 또한 최근 中共이 現代化를 위해 開放政策을 취하고 있음에서 실감있게 반증해주고 있다.

네째로 論理的 虛偽性和 矛盾性이다. 종속이론가들은 평등과 평의가 구현되는 인간적인 社會를 성취하기 위해 社會主義의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주장과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폴란드 事態에서 보듯이 共產主義體制는 그들이 목표가치로 내세웠던 平等社會의 실현대신에 군사적 劃一社會를 구축하였다. 官製의 이데올

19) 劉英俊, "從屬論·그 理論과 實際의 乖離" 京鄕新聞社, 大學과 思想, 京鄕新聞社, 1982. pp.82~83.

20) 廉弘喆, "從屬理論의 根本問題 I·II" 京鄕新聞社, Ibid, p.92.

21) 이 부문의 金浩鎭의 論文(op.cit)에 거의 의존하였음. pp.112~113. 또한 Benjamin J. Cohen. The Question of Imperialism, Basic Books, Inc. 1973 參照

로기와 階層的 官僚秩序는 창조적 사고와 社會的 多元主義의 출현을 그 씨앗부터 눌러버렸고 자유로운 정치과정을 閉塞시켰다. 이렇듯 非人間化된 상황속에서 共產主義體制가 아직도 내세우는 平等社會의 정치적 구호는 이미 설득력을 잃은 빛바랜 神話임에 틀림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종속이론의 발전대안은 비현실적인 허구이며 현실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革命이 주 목적일 뿐 진정한 인간조건의 개선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非人間的 代案으로 볼 수 밖에 없다.

Ⅲ. 北韓의 對南戰略과 從屬理論

北韓은 統一을 최대의 國家當面目標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北韓權力の 中樞인 「朝鮮勞動黨」의 最終目的도 “全國的 範圍에서… 共產主義 社會를 建設하는 것”으로 삼고 있다.²²⁾ 그리고 “全國的 範圍에서의 共產主義建設”, 즉 南半部の 共產化라는 目標을 政權樹立 이래 한번도 바꾼적이 없으며, 이를 拋棄하리라는 어떠한 조짐도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北韓共產體制는 軍事·外交·經濟등 모든 次元에서의 계획에서 共產化 統一의 目標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어 어떤 뜻에서는 共產化 統一이 그들의 「存在理由」처럼 되어 있다. 이러한 실정이므로 北韓의 共產化統一은 그들의 南北關係를 評價하는 普遍的인 判斷基準이 되고 있으며, 또한 모든 行爲의 指針이 되고 있다.

北韓은 이러한 「最終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當面目標로서 「共產國 北半部에서의 社會主義의 完全勝利」 「全國的 範圍에서의 民族解放成就」 및 「人民民主主義 革命課業遂行」으로 삼고 있는데 「全國的 範圍에서의 民族解放」이란 곧 韓國으로 부터의 美軍撤收, 그리고 「人民民主主義 革命遂行」이란 韓國의 現存政府를 打倒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北韓의 對南統一政策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統一問題에 관한 論理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 核心이 되는 두가지 論理만 간단히 살펴보자.

1. 反帝國主義 民族解放 鬭爭論

北韓은 統一을 民族解放 鬭爭의 延長으로 주장한다. 그들의 論理에 따르면 韓國民族은 1945年 8月 15日에 日帝植民地下에서 半만 解放되었다. 北韓地域은 「蘇聯解放軍」에 의해 解放되었으나 南韓地域은 日帝를 대신한 美國帝國主義者들에 의해 다시 强占되었기 때문

22) 「朝鮮勞動黨規約」(70.11 개정) 前文에서는 “朝鮮勞動黨의 당면목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의 革命課業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 데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다. 北韓에는 그후 人民政府가 서고 蘇聯解放軍이 철수하여 완전한 解放을 성취했으나 南韓地域에는 아직도 美帝下에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의하면 統一이란 美帝를 몰아내어 南韓에서 마저 民族解放을 성취하는 작업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즉 그들은 統一을 日帝 때의 民族解放運動의 延長綫위에서 못다 이룬 民族解放의 完成課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北韓이 南北韓間 平和共存問題를 論議하는 모든 형태의 會義에서 北韓政權과 美國政府만이 當事者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러한 論理이다. 이들은 韓國政府를 美國帝國主義者가 만든 「統治道具」이지 韓國國民의 政府가 아니라는 虛構를 세워놓고 있어 韓國政府의 打倒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2. 人民民主主義 革命論

그들은 우리 民族의 진정한 解放은 外勢로부터의 解放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社會內部에서 「人民」을 착취하는 「反動」 계급을 타파할 때라야 비로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의할 것은 그들이 쓰는 用語인 「人民」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社會構成員全體」가 아니라 「共產主義體制를 지지하는 프롤레타리아 階層에 속하는 者」만이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民族統一은 南北韓의 특수계층인 人民들을 연결한다는 뜻이지 民族社會構成員 모두를 하나의 社會內로 포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南韓의 경우 아직 「人民大衆」은 反動부르조아 階級의 지배 즉 「反動政府」 밑에서 彈壓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기에 南韓人民의 解放을 위해 人民이 彈壓主體인 現政府를 打倒하고 「人民政府」를 수립하는 「人民民主主義革命」을 우선적으로 戰取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人民民主革命이 어려우면 北韓人民政權이 南韓政府를 武力으로 타도하여 民族統一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그들의 民族統一은 部分統一이며 「人民」 이외의 階層을 分離하는 反統一이기도 하다.

위에서 소개한 그들의 南北韓관계에 대한 주장과 論理를 알면 그들이 택할 수 있는 統一方案은 自明해진다. 결국 그들의 統一論理에 의하면 統一은 곧 「南韓에서의 反動政權 打倒」로 귀착되는 것이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北韓武裝力에 의해 南韓反動政權의 除去(戰爭)와 南韓人民에 의한 內部的 革命으로 政府를 전복하는 것(人民民主革命戰略)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北韓의 입장에서 보면 ① 全面戰을 통한 「南韓人民解放」이라는 戰略 ② 南韓人民의 革命을 지원하는 革命支援戰略의 두 가지 戰略選擇이 있게 되는 것이다.

北韓은 全面戰 戰略에 따라 1950年 南侵을 했었으나 力不足으로 실패했다. 그 이후 한동안 人民民主主義 革命爲主의 戰略을 펴 보았으나 韓國內人民의 「反共」 意識 때문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제 80年代에 있어北韓은 두가지 戰略 중 그 어느 것도 택할 수 있는 상황을 한들려고 노력하고 있다.北韓이 全面戰 또는 革命支援戰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對南攻勢를 취하게 될지는 未知數이다. 韓國內의 革命造成 狀況을 비롯한 內外情勢展開樣相과 南北韓 軍事力量 변화 등을 고취하면서 최종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²³⁾

〈表 2〉 對南統一戰略 構造

統一戰略目標	最終目標	全韓半島의 共產化
	當面目標	北韓의 社會主義 建設 전국적 범위내에서의 민족해방(주한미군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수행(남한정부타도)
論 理		반제국주의 민족해방 투쟁론 인민민주주의 혁명론
方 案		무력해방전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平和統一

(이 표는 李相禹, "북괴 平和攻勢 論理와 本質" 「共產圖研究」 1979.4에서 參照하였음)

北韓의 統一戰略展開에 있어서 平和攻勢는 아주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南北韓관계의 本質이 國家 간의 葛藤(international conflict)이 아닌 民族內部 葛藤(intranational conflict)이기 때문에 對決의 주된 장소가 軍事次元이 아니라 政治次元이고, 따라서 政治戰에서는 政治心理戰이 主役을 맡게 되므로 政治心理戰의 中核인 平和攻勢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北韓은 平和攻勢를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첫째로北韓은 戰略의 正當化 目的으로 平和攻勢를 펴고 있으며 南北韓 사이의 正統性 競爭에서 이기기 위함이다. 또 다른 平和攻勢의 목적은 革命與件 造成을 위해서이다. 反共意識이 높은 韓國國民과 美國의 警戒心を 없애주기 위해 「平和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함이고, 世界의 一般輿論을 北韓支持로 유도하여 韓國을 孤立시키기 위해北韓은 「平和攻勢」를 끈질기게 펴 나갈 것이다. 이렇듯北韓의 對南戰略에서는 「平和攻勢」가 아주 중요한 前哨戰이 된다.北韓共產集團이 對南赤化統一을 위하여 최근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平和攻勢」의 工作樣相의 特徵은 무엇인가? 그들은 국내 대학가에 있어 다수 學生들의 면학 분위기는 고조된 반면 극소수 學生들간에 대두되고있는 理念指向의 과격화 현상을 남한혁명수행 여건조성에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사태진전으로 과대평가하고 「意識化工作」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3) 拙稿, "北韓共產體制的 오늘과 내일," 濟大學報, 21집, 1980, p.168.

3. 容共意識化 工作

北韓 共產集團은 最近 國內 一部 大學街에서의 「反美左傾口號의 登揚」과 戰後 新世代들의 大學 社會進出등을 勘案, 이른바 「反팃쇼民主聯合政權」의 樹立을 對南工作의 當面鬭爭口號로 새롭게 設定하고 있다. 이는 北韓 共產集團이 韓國民의 對北警戒心を 弛緩시키는 反面에 現政府에 대하여 謀略宣傳을 集中시킴으로써 反政府鬭爭의 起爆劑로서 또 다시 青年學生들을 利用하려는 低意를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北側」은 前述한 바와 같이, 從來와 같이 直說的으로 共產主義革命을 煽動하기 보다는 「打倒對象」만을 「팃쇼」로 浮刻시키되 과도적인 弱體容共政權의 樹立을 期待하는 것인양 僞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現在 南北韓間에 前例없이 浮刻되고 있는 統一問題를 둘러싼 政治心理戰의 加熱化 趨勢에 便乘, 北側은 「高麗民主聯邦制」提議와 「南北最高責任者會談」提議를 놓고 青年知識인들이 統一論議를 積極화하도록 誘導함으로써 無分別한 統一論議와 統一感情을 刺戟하고 同時에 組織的인 容共意識 注入으로 「聯共合作」의 與件造成的 必要性을 一般화된 新世代의 感情의 共通分母로 轉換시키려고 試圖하고 있다.

한편, 韓·美協力體制의 強化와 駐韓美軍撤收論의 철회에 대하여 北韓共產集團은 이를 一部 學生들의 傾向에서 보듯이 「從屬理論」의 視角에서 韓美關係를 解釋하려는 態度를 더욱 刺戟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美國을 「새로운 帝國主義」의 張本人으로 矛盾造作하여 젊은 知識人들의 民族主義 感情에 어필할 수 있으며, 反美感情과 反美口號를 現實化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²⁴⁾ 이와 같은 戰略的 企圖를 깔고 北韓 共產集團은 「植民」, 「搾取」의 論理로 韓·美關係를 歪曲하며 「10.26 事態」以後 國內情勢를 역용, 反美·反政符 左傾性向을 助長하려는데 學園工作의 焦點을 두고 있다고 判斷된다.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統一問題를 위요하여 「民主化」, 「民族統一」의 口號아래 「左傾口號」와 類似한 口號들이 學園街에 登揚하게 됨으로써 彼我識別이 매우 어렵게 된다는 事實을 우리는 留意해야 할 것이다.

특히 「鬭爭形態」의 口號와 「鬭爭方法」의 口號에 있어서 一部 學生口號가 「反팃쇼 民主化鬭爭」이라든지 「民衆聯合形成, 暴力革命」등의 標語로 公公연하게 主張되고 있음은 北韓共產集團의 口號가 「反팃쇼民主化鬭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反팃쇼民主聯合戰線의 共同聯合鬭爭, 暴力革命」등의 標語로 使用되고 있음을 볼 때, 學園街의 一部 左傾的 口號는 北側의 煽動口號와 하등 다를 바 없다는 事實은 지극히 注目되어야 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

24) 梁榮植, "北韓의 對南戰略," 統一研修所, 1982. p.16.

다.²⁵⁾

北韓 共產集團은 容共意識化 工作手段으로서 그들의 對南黑色宣傳媒體인 소위 「統一革命堂 목소리 방송」을 통한 煽動을 비롯하여 不穩國書信, 不穩書籍의 國內投入과 休戰線擴聲器 誹謗放送 및 不穩傳單空中撒布등의 工作方法을 積極 利用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이와 같은 一部の 「左傾容共化 意識性向」의 表出은 本質적으로 自由民主體制와 國家安保를 弱化시키고 對共戰線의 脆弱化를 促進시키는 否定的 要因으로 作用할 優慮가 있음을 우리는 直視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分斷國으로서의 우리의 國家安保 現實을 外面하고 방관하게 될때, 이러한 意識性向은 결국 北韓 共產集團의 對南赤化戰略의 奏効化를 助長하는데 寄與할 것이기 때문이다.

IV. 從屬理論과 韓國의 現實

과연 종속이론은 우리의 政治·經濟現實의 分析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理論인가? 종속이론의 주장자들의 말과 같이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 자본주의 공업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종속 상태에 있는가? 그래서 선진공업국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自力更生의 길로 모든 人民革命에 의한 社會主義經濟體制로의 전환이 올바른 길인가?

첫번째 질문에 대해, 필자는 거의 不可能에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종속이론 자체가 理論의 一般性 및 洗鍊性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적 경험(사회경제적 상황포함)에 과잉의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한국적 특수상황은 최근들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분석시각을 같이하는 급진적인 마르크스 경제학으로 선회한 종속이론의 理論틀을 가지고 分析되기에 너무나도 決定的인 分析이라는 獨立變數가 內在해 있다는 두가지 사실에서 기인한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 朴宇熙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선진공업국가나 다른 개발도상국 및 후진개발국과는 달리 新興工業化推進國家로서 그 구조도 아프리카나 동남아 및 남미제국과는 다르며 꼭 從屬의이거나 過多依存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제다. 그간 社會間接 資本을 충실히 쌓아 올렸고, 貯蓄갯도 무리한 成長計劃을 세우지 않는한 상당히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 主穀이 한 때 수출된 적이 있으나 지금 電子, 기계, 강철, 선박, 석유화학제품등 重化學제품이 상품형식으로, 또 플랜트 直·合作投資 형식으로 해외에 수출되기 까지 하고 있다.²⁶⁾ 이종 해외건설수출은 人力수출과 함께 우리의 比較優位이며 달러박스이기까지 하다. 작년에는 11월 19일로 수출실적이 2백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農水產物 등

25) 金瑞, "北韓의 對南革命戰略과 青年學生", 共產黨研究, 1982.4, pp.36~42.

26) 朴宇熙, "新國際經濟秩序와 한국경제", 월간 조선, 1981.7, p.91.

의 1次産業은 줄어들고 섬유에 전자·철강부문이 가세되어 工產品이 93%나 되며 1백 70개국 이상에 우리의 상품이 수출되고 있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우리의 경제현실을 비추어 보건대, 朴昇 교수가 언급하듯이, 종속이론이 복시적으로 전제하는 후진국이란 1次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나라이며, 농업 및 광업이 주로 이룬다는 것인데, 수출품의 9割以上이 工產品인 韓國의 경우에는 종속이론의 論理가 妥當性이 없다.²⁷⁾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부가 「貸付·外資」 통제로 자본축적은 公益을 위한 전단계이며, 따라서 자본의 賣辦的인 활동은 이루어 질 수도 없다.

세째로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 경제성장이나 자립은 從屬理論의 권고를 따른다면 이것은 곧 人口過多·資源過少·國土分斷의 여건하에서 경제근대화는 하지 말자는 것을 사실상의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어떤 형태로든 국제경제와 경제관계를 단절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국제경제 환경을 有利하게 작용하도록 對內外適應態勢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에는 從屬論보다도 自由開放에 의한 對外指向的인 成長論이 實用性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미 후진국의 탈종속적 방법은 국제적 집단행동이나 사회주의적 개혁보다는 국가가 주도하여 국제경제대응 전략과 제반정책을 통해 종속과 취약성과 낮은 자급자족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세계적으로도 설득력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미 1970년대에 들어와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NIEO 운동과 그 구체적 표현수단인 UN決議案(74년 4월에 개최된 제6차 UN특별총회는 「신국제질서에 관한 宣言과 行動計劃」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74년 12월의 29차 총회에서는 모든 국가가 大國의 경제적 지배와 착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을 강조하는 국가간의 經濟倫理(憲章)을 채택했다)은 현존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성을 통해 南北間의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예견해 하고 있는 것이다.²⁸⁾ 특히 지난해 10월 22일과 23일에 카리브海의 휴양도시 칸쿤에서 「협력 및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라는 이름의 南北頂上會談(The North-South Survival Summit)이 열렸다. 北측의 선진공업국 8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오스트리아·스웨덴)과 南측의 14개국(중공·인도·사우디아라비아·필리핀·방글라데시·멕시코·베네스엘라·브라질·미니·알제리·나이지리아·코트디브와르·탄자니아·유고)이 참석한 이 회담은 제3세계의 문제를 南北間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을 하려는 것으로 유엔밖에서 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경제를 논의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27) 朴昇, 「從屬理論과 韓國經濟」, 言論記考研修院 研修教材, 1981. p.3.

28) Kim Odong "The Dependency theory and its Applicability to Korean Development"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79. No.19. p.230.

있다.²⁹⁾ 따라서 종속이론이 주장하는 제 1 세계와 제 3 세계간의 협상비판론은 배격되어야 한다

V. 結 論

지금까지 우리는 라틴아메리카의 低開發을 對象으로 하여 전개되온 從屬理論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從屬理論은 從屬理論家들 자신이 인정하는 것 처럼 아직 완성된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理論體系로서도 미완성 상태에 있고 이 理論이 제시하는 여러가지 命題도 아직 충분한 實證的 檢證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기에 論理的 문제점과 현실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그 이론의 적실성 여부가 문제가 됨을 지적했다. 그리고 종속이론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으로 인해 논리적·체제적인 이론이 못되고 감정적인 이론, 경제이론 이전의 政治 슬로건임을 간파할 수 있었다. 또한 급진론적 종속 이론가들이 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혁명과 사회주의를 주축으로 하는 탈종속도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³⁰⁾

80년 2월에 「北과 南—生存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表題下에 발표된 「Brandt」 委員會 보고는 「南(have-no countries)은 北(have countries)의 존재없이 충분한 성장을 할 수 없고, 北은 南의 더 큰 진보없이 번영하지도 못하고 사회를 개선할 수도 없다」는 지적과 함께 先進國 資本에 의한 南의 공업개발만이 南의 貧困과 北의 大量失業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언명하고 있다. 결국 경제의 국제화가 고도로 진전되고 국민경제간의 상호의존 관계가 고도로 심화된 오늘에 있어서 세계의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 경제와 무관하게 번영을 누릴 수 없다. 이렇듯 현대는 相互依存의 시대이다. 이는 종속이론가들의 주장이 객관적 타당성을 잃고 있음을 반증해 준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어떠한 주체적 조건을 가지고 세계경제의 변화에 얼마나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만약 북한공산주의자나 종속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종속주의를 경계한 나머지 폐쇄적으로 문닫으면 우리는 영원한 停滯와 貧困의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從屬理論은 自國의 歷史와 現實을 主體의인 시각으로 조명해서 발전문제를 생각하고 그에 관한 理論을 定立시켰다는 自我準據主義가 가지는 社會科學的 意義는 있으나 우리의 現實에서 從屬理論의 受容問題는 위에서 언급한 그 理論이 갖는 論理的·戰略上的 문제점과

29) Newsweek, 1981. 10.26. pp.38~45.

30) Ronald H. Chilcote, Theories of Comparative Politics, Colorado: Westview Press, 1981, pp.308~312.

이데올로기 性向으로 인해 회의적이다. 오히려 바람직한 태도는 우리의 歷史와 現實에 준거해 한국의 발전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독창적인 理論을 개발하는 일이다. 만일 그러함에도 從屬理論에 心醉한다는 것은 北韓의 對南戰略에 對한 正當性을 심어줄 뿐이 되고 우리의 당면과제인 自立 民族統一國家의 완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점이다.

— Summary —

South-North Korean Relations and Dependence Theory

Seong-june Ko

A review was conducted explicating assumptions on which the so-called, dependency theory was built. And they were contrasted against those of David Apter's Structural theory of politics. From this effort it became apparent that the key difference rests in whether one believes the existence of "progressive force" in a history of Third World or not.

The theorists of dependence contend that nationalism achieved through self-reliant force shall overcome all the difficulties presented by foreign elements in escaping from underdevelopment, whereas David Apter' points out that the belief in such a thing is the consequence of lack of analytical power on the part of scholars. While dependence theorists have taken national pride and self-esteem as a top priority in formulating their arguments, Apter' seemed to have considered U.S. national interest in confronting power competition with U.S.S.R. in the Third World arena as a top priority.

Korean Situation call for adopting both assumptions at the same time. The country's security depends on the U.S. and therefore her inevitable consensus with U.S. policies in the Third World let her develop all policies internal or foreign on the basis of stability and order. Interpretation of these varies among different views, but also she faces with the reality of change.

Dependence theory has been from Latin America. Its theory is related to socio-cultural background of Latin America. So if we adjust mechanically dependence theory to our situation, it would be harmful for the fulfillment of our nation's task and only contribute to the strategy of North Korea.